

가정교육의 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시안

A Scale on Attitudes of Home Educatio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池 英 淑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 Young-Sook, Chi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李 映 浩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Lecturer: Young-Ho, Lee

본 연구에서는 “家庭教育의 不在”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정교육의 정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교육에 대한 기본태도와 가치성향을 규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써스톤척도(Thurstone scale)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문항 탐색과정과 평가자 선별과정 및 통계적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로서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마련되었다. 본 척도는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의 비교 연구 및 가정교육의 내용, 방법론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론

1. 문제제기

우리는 教育의 目標을 설정할 때 全人教育을 말한다. 全人教育은 知·情·意가 조화된 完만한 人格者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教育이기에 넓은 의미의 人格教育이고 倫理教育이기도 하다.

이때 우리는 教育의 場을 家庭, 學校, 社會라고 하며 각기 독특하고 고유한 내용과 성격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家庭教育은 父母가 教育의 主體가 되어 자녀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교육으로서 양친에게 부과된 자연적 권리이자 사회에 대한 최고의 의무이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父母의 態度, 言行을 통하여 무의식중에 教育이 이루어지는 非形式的이고 無意圖의인 것이 많다는 점에서 부모의 생활전체에 대한 教育的 配慮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生活教育이고 長期教育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어느 教育보다도 人格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教育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오늘날 教育의 量的 成長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적 갈등과 정신적 혼돈, 그리고 가치관의 마찰은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심각한 倫理의 危機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화살은 가정교육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부모의 省察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느 教育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家

1) 예를 들어서 문항 31과 문항 46의 경우에 그 응답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제외하였으며, 단, 중립적 태도에 응답한 경우는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별도로 통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가 설문지가 회수되는 즉시 설문지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선별하였다.

庭教育이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우리의 관심과 의무에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研究者는 앞서서 家庭教育의 現代的 課題(I, II, III 報)를 통하여 父母가 갖는 문제로서 첫째, 價値의 多樣性이 전제되는 오늘날, 모든 가정에 공통되는 단일목표를 제시할 수 없음으로써 부모는 家庭教育의 目標와 方向 설정에 있어 불분명하고, 적정한 價値基準의 상실로 權威와 自信感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둘째, 價値觀의 混迷와 自信感의 상실은 教育의 모두를 學校教育에 일임하거나 매달림으로써 자녀에 대한 희망과 관심 및 요구가 모두 知的 學習에만 국한된 學校萬能主義를 낳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자녀가 갖는 문제, 가정의 외형적 변화와 내적기제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등이 있으나 家庭教育의 核心은 부모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므로 부모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바른 意志와 信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불안과 동요로부터 安定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 후 부모의 교육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를 통해 밝혀 보고자 1991년부터 1993년에 걸쳐서 남녀 대학생으로 하여금 “내가 받은 家庭教育”이라는 주제하에 그들이 보고 느끼고 가슴깊이 새겨 놓은 내용을 스스로 진단하여 서술토록 하였다(656部). 그 사례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남녀 대학생들은 부모가 보여준 행동양식과 언행 및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경험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에게 기대되는 것은 민주적인 가정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치의 전환과 구체적인 행동양식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녀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본적 태도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우선 가정교육의 주제인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개 家庭教育이라고 하면 傳統家庭教育의 내용이나 규범과 의식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그것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사상을 기저로

가정교육을 정형화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과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였고 현대사회가 지향해야 할 人間像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 및 생활교육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새 시대에 부응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교육과 관련한 여러 실증자료와 지난 연구과정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교육의 태도에 대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태도는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이고, 학습의 기초이다. 여기에서 태도라는 개념은 일정한 행위 방식으로 사회적 事象을 지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려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성향을 의미한다(塩田芳久, 1963). 따라서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가정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학습내용을 규정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尺度)구성의 방법으로는 평정(評定)척도법, 써스톤(Thurstone)척도법, 리커트(Likert)척도법, 도법, 누적(Cumulative 또는 Guttman)척도법등이 있다(김경동·이은죽, 1990). 태도를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척도들은 성질상 서열척도(序列尺度)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等間的 特性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척도 중에서 써스톤척도는 척도구성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等間性을 확보하고자 시도된 것이므로 척도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써스톤척도법을 기초로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써스톤척도 중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이 類似同間法(the method of equal-appearing intervals)이며, 이에 준한 척도구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김경동·이은죽, 1990).

- 1)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문장 또는 진술들을 수십-수백개 정도 우선 만든다.
- 2) 다수(50명~300명)의 평가자들이 이들 문장

들을 11개 점수 또는 범주로 나눈다. 이 11개 범주는 대체로 가장 호의적인 것에서 중립적인 것 그리고 가장 비호의적인 것에 이르는 일종의 평정척도이다.

3) 이들 평가자 개개인이 분류하여 위치시킨 점을 각 문장의 점수로 하고 평가자들의 수로 나눈 평균치(mean)를 각 문장의 척도값(scale value)으로 삼는다.

4) 점수분포가 지나치게 분산된 문장들은 원칙적으로 태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택하지 않는다.

5) 남은 문장들 중에서 태도의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문장들을 선정하여 태도척도를 삼는다.

II. 가정교육에 대한 문항 탐색과정

1. 의견의 수집

가정교육의 태도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준비로서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수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견수집방법으로 그간(1991~1993)에 대학생들로부터 받았던 656부의 보고서와 관련논문(佳田和子, 1981), 관련서적(鄭元植, 1984; 李熙昇外, 1985; 들로리스 큐란, 1994), 신문에 실린 가정교육에 관한 기사, 주위 분들의 면접을 통한 공통된 의견등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준비하였다.

수집된 의견들의 호의도에 따라 내용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유의하면서 간결한 문장으로 文項化하였다. 이 과정에서 2가지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 것은 되도록 분리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감정적 표현은 가능한한 피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로 얻어진 의견의 내용은 80문항으로 표 1과 같다.

2. 평가자의 선별

씨스톤척도는 문항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그 척도의 등간성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문장을 처음 분류하게 되는 응답자들의 성향에 따라 평가와 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는 연구내용과 조사대상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표할만한 객관적인 평가자를 선

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에 대한 문항의 평가자로서 응답자를 선별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취하였다.

1) 가정교육에 대하여 최소한이라도 고민해 볼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보여지는 결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가정교육의 책임은 양친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친이 다수 포함되도록 배분한다.

3) 각 생활주기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되 자녀출산 및 양육경험이 없는 신혼기는 제외한다.

4)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 종사자를 다수 포함토록 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응답자를 선별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질문지는 108부였다. 문항수(80문항)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이면서 긍정·부정의 차원을 달리하여 질문한 내용의 응답을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는 응답¹⁾은 신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79매이며, 평가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이 전체의 40.51%(32명), 여성이 59.49%(47명)를 차지하였으며, 가정생활주기는 첫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가 35.44%(28명)로 가장 많고, 첫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직, 군복무,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가 27.85%(22명), 첫자녀의 결혼으로부터 막내자녀가 결혼하기 전의 시기는 22.79%(18명), 그리고 첫자녀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시기가 13.92%(1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의 직업분포는 전업주부가 29.11%(23명), 교육계 종사자가 44.30%(35명)로서 여기에는 각급학교의 상담교사 및 교감, 교장선생님과 교육위원회의 종사자, 대학교수가 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타 비교육계 일반사회인도 26.58%(21명)가 포함되었다.

III. 가정교육 태도에 대한 척도 개발

의견수집의 결과로 얻어진 80개의 문항에 대하여 각 평가자로 하여금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각 문항에 관해서 보다 호의적인 의견인지 보다 비호의적인

표 1.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의 문항화

문항정리번호	설 문 내 용
1	가정교육은 생활교육이다.
2	가정교육은 부모의 생활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3	가정교육은 남에게 맡겨서 할 수도 있다.
4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5	가정교육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6	가정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7	가정교육은 후천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8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9	가정교육의 역할은 양친에게 똑같이 있다.
10	가정은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학교이다.
11	가정교육은 자녀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12	가정생활 그 자체가 가정교육이다.
13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
14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
15	가정교육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16	자녀를 반드시 집에서 키워야 할 필요는 없다.
17	자녀는 본가에서 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18	가정교육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19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것이다.
20	가정교육은 남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21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22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원형이다.
23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
24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	가정교육에서 집안의 분위기는 중요한 것이다.
26	가정교육의 근본은 사랑이다.
27	“인간 만들기”의 기초는 가정이다.
28	가정교육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9	가정교육은 양친의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30	가정교육은 사회교육/학교교육과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1	가정교육은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안된다.
32	가정교육은 “사람만들기”에 필요한 것이다.
33	가정교육은 일관된 방침으로 자녀에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가정은 교육의 근원지이다.
35	가정교육은 자녀와 부모의 일상적인 접촉에서 비롯된다.
36	가정교육에서 어머니의 영향은 크다.
37	가정교육은 부모의 교육관/아동관이 중요하다.
38	가정교육은 심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39	가정교육은 어머니의 신념/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문항정리번호	설문내용
40	가정교육은 양친의 교육방법이 일치해야 한다.
41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42	가정교육은 확고한 인생관이 필요하다.
43	가정교육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44	가정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아버지이다.
45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것도 가정교육이다.
46	가정교육은 부부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47	가정교육은 사회교육/학교교육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48	자녀교육은 학교에 일임하면 그만이다.
49	가정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다.
50	가정교육에는 종교가 필요하다.
51	가정교육은 가정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52	가정교육은 어느 정도의 물질적 환경이 필요하다.
53	가정교육의 최고책임자는 어머니이다.
54	가정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55	가정교육은 자녀가 자발적으로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56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아도 훌륭한 가정교육은 가능하다.
57	가정교육은 부친만으로도 가능하다.
58	가정교육은 지리적인 조건과도 관계가 있다.
59	가정교육은 양친의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한다.
60	민주적인 분위기가 가정교육에 바람직하다.
61	가정교육은 남·녀구별이 있어야 한다.
62	가정교육은 대화가 중요하다.
63	가정교육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
64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
65	자녀의 서열에 따라 가정교육의 내용은 달라야 한다.
66	부부생활과 가정교육은 별개의 것이다.
67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68	가정교육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하다.
69	가정교육은 남보다 우월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70	가정교육은 자녀의 인생관에 영향을 많이 준다.
71	가정교육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72	가정교육에서 체벌은 필요한 것이다.
73	가정교육은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74	가정교육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75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76	가정교육은 덕성교육이 중요하다.
77	가정교육의 책임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있다.
78	가정교육은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79	가정교육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하다.
80	가정교육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견인지에 따라서 11개의 연속선위에 표시토록 의뢰했다. 각각의 의견에 대한 점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값을 척도치로 삼아 각 문항을 척도치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순서로 배열하였다(표 2).

표 2에 기초하여 일차적으로 가장 척도치가 낮은 가장 비호의적인 의견(예를 들면, 48 자녀교육은

학교에 일임하면 그만이다. 1.823)에서 가장 척도치가 높은 가장 호의적인 의견(예를 들면, 10 가정은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학교이다. 10.418)에 이르기까지 각 의견이 거의 균등한 간격으로 선택되면서 척도의 문항수가 20~30문항정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최저 척도치를 기준으로 척도치의 간격을 0.4점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였다. 만약

표 2. 척도치에 따른 문항 배열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척도치	표준편차
48	자녀교육은 학교에 일임하면 그만이다.	1.823	1.738
49	가정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다.	1.987	2.010
46	가정교육은 부부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2.101	1.438
54	가정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544	1.933
78	가정교육은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734	1.985
66	부부생활과 가정교육은 별개의 것이다.	2.924	2.485
24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24	2.505
45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것도 가정교육이다.	3.418	2.421
57	가정교육은 부친만으로도 가능하다.	3.620	2.747
47	가정교육은 사회교육/학교교육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3.620	2.747
3	가정교육은 남에게 맡겨서 할 수도 있다.	3.772	2.567
64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	3.924	2.303
65	자녀의 서열에 따라 가정교육은 달라야 한다.	4.101	2.776
69	가정교육은 남보다 우월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4.418	2.634
61	가정교육은 남·녀구별이 있어야 한다.	4.722	3.328
16	자녀를 반드시 집에서 키워야 할 필요는 없다.	4.481	2.791
14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	4.924	2.782
13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	5.810	2.755
58	가정교육은 지리적인 조건과도 관계가 있다.	5.848	2.517
6	가정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5.848	2.783
50	가정교육에는 종교가 필요하다.	5.873	2.893
55	가정교육은 자녀가 자발적으로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6.051	2.740
19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것이다.	6.051	3.063
53	가정교육의 최고책임자는 어머니이다.	6.089	2.883
63	가정교육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	6.519	3.320
23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	6.532	2.516
44	가정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아버지이다.	6.590	2.807
15	가정교육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6.823	2.610
52	가정교육은 어느 정도의 물질적 환경이 필요하다.	7.139	2.448
18	가정교육은 부모의 사회적지위와 관련이 있다.	7.139	2.625
5	가정교육은 부모의 사회적지위와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	7.241	3.009

문항번호	문항내용	척도치	표준편차
72	가정교육에서 차별은 필요한 것이다.	7.924	2.433
20	가정교육이 남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8.051	2.750
22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원형이다.	8.127	2.579
56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아도 훌륭한 가정교육은 가능하다.	8.291	2.429
17	자녀는 본가에서 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8.468	2.566
7	가정교육은 후천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8.671	2.422
33	가정교육은 일관된 방침으로 자녀에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9.000	2.375
40	가정교육은 양친의 교육방법이 일치해야 한다.	9.013	2.054
59	가정교육은 양친의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한다.	9.026	2.162
77	가정교육의 책임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있다.	9.103	1.965
42	가정교육은 확고한 인생관이 필요하다.	9.139	1.723
38	가정교육은 심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9.152	2.013
43	가정교육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9.215	2.152
39	가정교육은 어머니의 신념/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9.253	1.794
51	가정교육은 가정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9.278	1.467
49	가정교육은 부모의 교육관/아동관이 중요하다.	9.354	1.618
11	가정교육은 자녀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9.430	1.533
76	가정교육은 덕성교육이 중요하다.	9.456	1.500
30	가정교육은 사회교육/학교교육과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9.481	2.068
21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9.506	1.431
71	가정교육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9.506	2.189
60	민주적인 분위기가 가정교육에 바람직하다.	9.532	1.686
40	가정교육은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안된다.	9.557	1.599
41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9.582	1.773
75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9.684	1.598
73	가정교육은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9.709	1.618
36	가정교육에서 어머니의 영향은 크다.	9.722	1.290
28	가정교육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9.785	1.499
70	가정교육은 자녀의 인생관에 영향을 많이 준다.	9.848	1.468
79	가정교육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하다.	9.861	1.465
32	가정교육은 "사람만들기"에 필요한 것이다.	9.911	1.521
12	가정생활 그 자체가 가정교육이다.	9.924	1.412
26	가정교육의 근본은 사랑이다.	9.924	1.412
35	가정교육은 자녀와 부모의 일상적인 접촉에서 비롯된다.	9.975	1.074
80	가정교육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9.987	1.481
25	가정교육에서 집안의 분위기는 중요한 것이다.	10.013	1.214
9	가정교육의 역할은 양친에게 똑같이 있다.	10.025	1.577
1	가정교육은 생활교육이다.	10.051	1.576
34	가정은 교육의 근원지이다.	10.063	1.314

문항번호	문항내용	척도치	표준편차
74	가정교육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10.076	1.375
29	가정교육은 양친의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10.089	1.332
27	“인간 만들기”의 기초는 가정이다.	10.128	1.199
62	가정교육은 대화가 중요하다.	10.190	1.133
8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10.241	1.201
2	가정교육은 부모의 생활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10.244	1.311
4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10.329	1.152
10	가정은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학교이다.	10.418	1.116

같은 점수의 문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한 표준편차가 작은 것을 택하면서 주로 설문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하였다.

즉 최저 척도치를 나타내는 문항은 48번으로서 척도치가 1.823이므로 1.823에 0.4를 더하면 2.223이 된다. 척도치 2.223과 가장 근접한 값을 보이는 46번 문항(척도치 2.544)을 두번째 문항으로 채택하고 여기에 0.4를 더하면 2.944가 된다. 이에 근접한 척도치를 보이는 문항은 66번과 24번이다. 66번의

문항내용은 “부부생활과 가정교육은 별개의 것이다”이고 24번의 문항내용은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그런데 66번 문항은 앞서 채택한 46번 문항의 내용(가정교육은 부모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과 중복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24번을 채택하였다(단 특별한 몇 문항은 제외). 설문내용의 중복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가 문항내용에 따라 비슷한 내용이거나,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표 3. 등질적인 문항묶음표

	유사문항군	내용
1)	1, 12, 35, 75*	생활교육으로서의 가정교육
2)	2, 29, 31, 46,* 66	부모의 생활방식, 태도와 가정교육
3)	3, 16, 17, 20, 45*	가정교육의 대행자
4)	4,* 11, 27, 32, 68, 70, 73	인간교육의 기초로서의 가정교육
5)	5, 18,* 56,* 58	부모의 비경제적 자원과 가정교육
6)	13,* 15, 52	부모의 경제적 자원과 가정교육
7)	6, 9, 14,* 36, 44, 53,* 57, 71*	가정교육의 의무, 책임자
8)	22, 30, 41, 47, 48*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과의 관계
9)	21, 24*	가족관계와 가정교육
10)	23, 25,* 51, 60, 62	가정분위기와 가정교육
11)	26, 28, 67*	부모의 애정과 가정교육
12)	33, 37, 39, 40, 42, 59,* 64, 78	양친의 교육방침
13)	38, 74, 76, 77,* 79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14)	54,* 55	비의도적인 가정교육
15)	61, 65*	성별, 형제서열과 가정교육
16)	19, 63,* 69*	학력사회와 가정교육
17)	7,* 49	후천적, 형식적 가정교육
18)	8, 10,* 34	교육의 근원지로서의 가정
19)	43, 80	가정교육의 계속성, 시기적 중요성
20)	50, 72*	가정교육과 종교, 재벌

*척도로 채택된 문항

문항을 요인화하여 작성한 표 3에 기초하였다.

이상과 같은 순서를 거쳐서 구성된 척도는 표 4와 같다.

IV. 결 론

가정교육 태도에 대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여러가지 문항탐색과정과 통계적 절차를 거친 결과 24문항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안을 마련하였다(표 4).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본질적으로 교육적 관계이므로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격교육이고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관의 다양성이 전제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부모의 교육적 기능과 태도의 향방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가정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해도 그의 실현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기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정교육 실상은 부모자녀간 애정적 관계의 병리적 증후마저도 적지 않게 노정하고 있다.

결국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자신의 삶의 태도이고 자신이 세운 기준이 얼마나 정당하며 그것을 위해 부모가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가정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하고 이를 척도화함으로써 가정교육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가정교육에 대한 기본태도와 가치성향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본 척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평가자들의 태도는

표 4. 가정교육태도 척도

문항번호	척도 문항(24문항)	척도치	표준편차	간 격
48	자녀교육은 학교에 일임하면 된다.	1.823	1.738	
46	가정교육은 부부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2.101	1.488	0.278
54	가정교육은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2.544	1.933	0.443
24	가정교육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24	2.505	0.380
45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것도 가정교육이다.	3.418	2.421	0.494
64	가정교육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우선이다.	3.924	2.303	0.506
65	자녀의 서열에 따라 가정교육은 달라야 한다.	4.101	2.776	0.177
69	가정교육은 남보다 우월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4.418	2.634	0.317
14	가정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다.	4.924	2.782	0.506
67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5.241	2.598	0.317
13	가정교육은 부모의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다.	5.810	2.755	0.569
53	가정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어머니이다.	6.089	2.883	0.279
63	가정교육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	6.519	3.320	0.430
18	가정교육은 부모의 사회적지위와 관련이 있다.	7.139	2.625	0.620
72	가정교육에서 체벌은 필요한 것이다.	7.924	2.433	0.785
56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아도 훌륭한 가정교육은 가능하다.	8.291	2.429	0.367
7	가정교육은 후천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8.671	2.422	0.380
59	가정교육은 양친의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한다.	9.026	2.162	0.355
77	가정교육의 책임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있다.	9.103	1.965	0.077
71	가정교육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9.506	2.189	0.403
75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9.684	1.598	0.178
25	가정교육에서 집안의 분위기는 중요한 것이다.	10.013	1.214	0.329
4	가정교육은 인간생활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10.329	1.152	0.316
10	가정은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학교이다.	10.418	1.116	0.089

가정교육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선별된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척도가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데 널리 이용됨으로써 여러 변수에 따라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가정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론의 연구로 확대 이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항탐색과 평가자선별 등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부모자신이 가정교육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연구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金璟東·李溫竹(1990). 社會調查研究方法—社會研究의 論理와 技法—. 서울: 박영사.
- 2) 이수원(1994). 태도의 구조변화와 의식개혁. 의식개혁: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37-49.
- 3) 李熙昇外(1985). 명사 66인이 쓴 내가 받은 가정교육. 샘터 유아교육신서 14, 샘터.
- 4) 鄭元植(1984). 개방시대의 가정교육—아버지 방법, 어머니기술. 집현전.
- 5) 鄭元植·李延燮·朴性洙(1984). 兒童心理와 家庭教育, 한국방송사업단.
- 6) 조선일보편집부편(1981). 家庭教育. 조선일보사.
- 7) 池英淑(1990). 家庭教育의 現代的 課題(第1報). 人文科學 제 20 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1-171.
- 8) 池英淑(1992). 家庭教育의 現代的 課題(第2報). 人文科學 제 22 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1-103.
- 9) 池英淑·李映浩(1994). 家庭教育의 現代的 課題(第3報). 人文科學 제 24 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5-170.
- 10) 최도형 역·돌로리스 큐란 지음(1994).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서울: 엘멘출판사.
- 11) 佳田和子(1981). “家庭教育の關する 態度の研究—態度測定尺度の構成(第1報)—. 家庭學雜誌 32(9), 48-55.
- 12) 山下俊郎(1980). 家庭教育. 光生館.
- 13) 塩田芳久(1963). 教育心理學實驗演習 II. 東京: 同學社.
- 14) Crase, S.J., Carlson, C. & Kontos, S.(1981). Parent Education Needs and Sources as Perceived by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3), 221-231.